

이 자료는 **4월 10일(수)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9년 4월 9일(화) (총 6쪽)	담당부서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최윤선 팀장 (043-880-5421) 조지영 대리 (043-880-5424)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 난간 밖으로 추락하거나 문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란다(발코니) 공간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개방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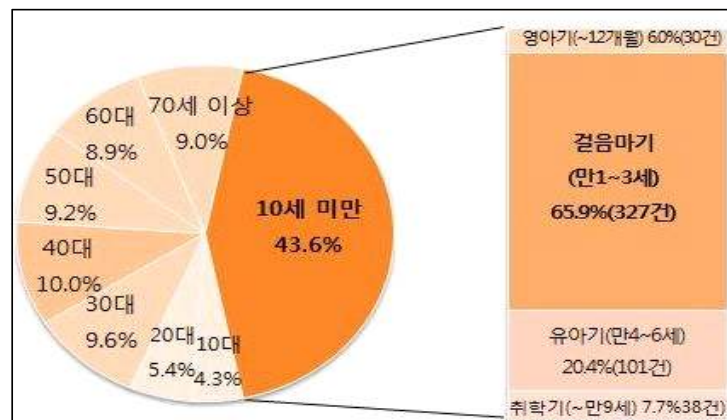
□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10세 미만'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 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베란다(발코니) 위해사례 연령별 현황]



□ 10세 미만 어린이 미끄러짐·부딪힘으로 인한 열상, 타박상, 골절 많아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품목별 위해원인]

(단위 : 건, %)

품목	주요 위해원인			합계(비율)
새시	부딪힘 (92건, 46.0%)	눌림·끼임 (82건, 41.0%)	기타 (26건 13.0%)	200(40.3)
타일바닥재	미끄러짐·넘어짐 (110건, 98.2%)	기타 (2건, 1.8%)		112(22.6)
빨래건조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각 9건, 50.0%)	부딪힘 (7건, 38.9%)	기타 (2건 11.1%)	18(3.6)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할 것,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할 것,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p>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p>	<p>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	--

< 붙임 >

1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 현황

□ **(현황)**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건수	363	404	391	1,158
증감률	-	11.3	△3.2	-

□ **(연령별)** '10세 미만'이 496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는 10.0% 이하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비율)
10세 미만	496(43.6)
10대	49(4.3)
20대	62(5.4)
30대	109(9.6)
40대	114(10.0)
50대	105(9.2)
60대	101(8.9)
70세 이상	103(9.0)
합계	1,139(100.0)

[연령별 현황]



* 미상 19건 제외

○ 10세 미만 연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걸음마기(만1~3세)' 시기의 어린이가 327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10세 미만 연령 현황]

(단위 : 건, %)

구분	영아기 (~12개월)	걸음마기 (만1~3세)	유아기 (만4~6세)	취학기 (~만9세)	합계
건수	30	327	101	38	496
비율	(6.0)	(65.9)	(20.4)	(7.7)	(100.0)

- **(품목별 위해원인)** 베란다(발코니) 유리문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례,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례가 많았음.

[10세 미만 품목별 위해원인 현황]

단위 : 건, (%)

위해품목	위해원인			합계(비율)
새시	부딪힘 (92건, 46.0%)	눌림·끼임 (82건, 41.0%)	기타 (26건, 13.0%)	200 (40.3)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미끄러짐·넘어짐 (110건, 98.2%)	기타 (2건, 1.8%)		112 (22.6)
빨래건조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각 9건, 50.0%)	부딪힘 (7건, 38.9%)	기타 (2건, 11.1%)	18 (3.6)

- **(위해부위별)** 10세 미만 어린이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 331건(66.7%), ‘팔·손’ 114건(23.0%), ‘둔부, 다리·발’ 26건(5.3%) 순임.
- ‘신체 내부’의 경우 보일러 가스누설로 인한 중독 사례, 세탁세제, 빨래집게 등을 삼킨 사례 등이 포함됨.

[10세 미만 위해부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비율)
머리·얼굴	331(66.7)
팔·손	114(23.0)
둔부, 다리·발	26(5.3)
신체 내부	14(2.8)
기타(목·어깨 등)	11(2.2)
합계	496(100.0)

- **(위해증상별)** 10세 미만 어린이의 위해 증상으로 ‘열상(찢어짐)’이 288건 (58.1%)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85건(17.1%), ‘찰과상’ 29건(5.9%), ‘골절’ 21건(4.2%) 순이었음.

[10세 미만 위해증상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비율)
열상(찢어짐)	288(58.1)
타박상	85(17.1)
찰과상	29(5.9)
골절	21(4.2)
뇌진탕	15(3.0)
출혈 및 혈종	9(1.8)
기타*	49(9.9)
합계	496(100.0)

*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체내 위험 이물질, 중독 등

□ 주요 사례

○ 품목별 사례

새시	2016년 6월 1일 A군(남, 만6세)은 베란다(발코니) 유리문이 열린 줄 알고 뛰어가다 부딪혀 이마에 열상 을 입고 치료 받음.
바닥	2018년 11월 12일 B양(여, 만9세)은 베란다(발코니)에서 미끄러져 머리에 뇌진탕 을 입고 치료 받음.
빨래 건조대	2016년 2월 10일 D양(여, 만2세)은 베란다(발코니)에서 빨래건조대의 돌출된 쇠에 구강을 찔려 치료 받음.

○ 위험 사례

추락사고	2016년 10월 1일 E군(남, 만2세)은 아파트 7층 베란다(발코니)에서 방충망이 떨어지며 추락해 목 골절 로 치료받음.
끼임사고	2017년 10월 2일 B군(남, 만1세)은 베란다(발코니) 새시에 낀 손가락이 절단 돼 치료받음.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01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주의하세요!



베란다(발코니)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합니다.

02 베란다(발코니) 창가에 기대지 마세요!



방충망은 단순 방충을 위한 장치로서 무게가 실리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03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하세요!



문 틈에 끼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둡니다.



세탁기, 건조대, 화분 등 배치 물품 모서리에 충격 완화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난간 높이가 낮거나 난간 틈이 넓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베란다(발코니) 문 또는 창문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주변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제거·정리합니다.



베란다(발코니)를 놀이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 보관합니다.